'지역 현안 해결' 전방위 지원 요청

전춘성 진안군수, 중앙부처 찾아 지덕권 산림약용작물 특화단지 조성 등 건의

전춘성 진안군수는 12일 진안군 발전의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산림청과 기획재정부를 직접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 군수는 산림청 산림보호국과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를 찾아 사업의 시급성과 파급 효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국정과제 반영 및 예비타당성 신청,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사업계획 반영 등 진안군 현안 사업이 반영 및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12일 진안군 발전의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산림청과 기획재정부를 직접 방문했다.

이번에 건의한 주요 사업은 △세계 바이오산업 규모 확대에 대응하는 국가 단위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지덕권(신광재) 산림약용작물 특화단지 조성(1,913억원), △도로의 안정성 확보와 전북 동·서부 연결을 통한 국토의 지역균형개발 촉진을 위한 국도26호선(완주 소양~진안 부귀) 도로개량사업(698억원) 등 2건이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면담을 통해 진안군의 현안을 직접 설명하고 반영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군의 미래를 좌우할 사업들이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추진되도록 끝까지 뛰겠다."고 강조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폭염 속 어르신 맞춤형 돌봄 강화

장수군, 총 830여명 어르신 대상 전화 · 방문 등 돌봄서비스 제공

장수군이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상특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운영하며, 수행기관인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전담사회복지사 3명과 생활지원사 52명이 총 830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안부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일부터는 폭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집중관리 대상 어르신들 251명을 지정해 건강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말에도 전화·방문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관내 경로당 무더위쉼터 운영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폭염이 장기화되며 어르신 건강이 우려되는 시기이다"며 "폭염 속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어르신 모두가 안전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청소년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 운영

진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감정 변화에 민감한 청소년들이 건강한 정서를 형성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진안 한방고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며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는 주제로 총 10회기 동안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나 탐색하기 △감정의 근원, 욕구 △공감대 형성 및 감정표현 △심리도식검사 △'성공경험' 등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정서적 회복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자살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돼, 생명 존중의 가치를 배우는 시간도 포함됐다.

지난 11일 진행된 첫 번째 날에는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자살예방 교육 및 우울 척도검사 실시, 감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활동과 간단한 자기소개와 자기 탐색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프로그램의 취지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내 감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새로웠다"고 말했다.

문민수 진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장(보건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느끼고 마음이 힘든 순간에도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회복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 관광 영상·숏폼 공모전

관광 활성화 위해 진행… 10월 31일까지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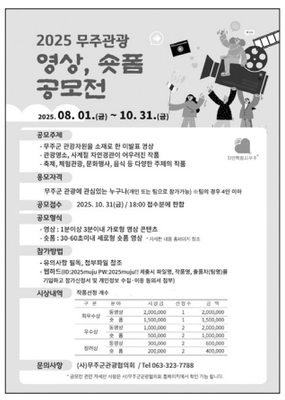
무주군이 '2025 무주 관광 영상·숏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무주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오는 10월 31일(18:00)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무주 관광에 관심이 있는 팀(4인 이하) 또는 개인,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무주군 관광 자원을 소재로 한 미발표 영상, △관광명소 사계절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작품, △축제, 체험관광, 문화 행사, 음식 등 다양한 주제로 가능하다.

제출 형식은 영상의 경우, 1~3분 이내 가로형 콘텐츠(해상도 1080*1920/9:16), 숏폼은 30~60초 이내 세로형 영상(해상도 FHD 1920*1080/16:9)으로, 웹하드(ID: 2025muju)를 통해 파일명과 작품명, 출품자(팀명) 기입 후 참가신청서 등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심사 결과 발표는 11월 예정으로 동영상 부문 최우수상(1명) 200만 원, 숏폼(1명) 150만 원을 비롯해 부문별 우수상(각 2명), 장려상(각 2명) 등 수상자 총 10명에게 750만 원의 시상금이 지급된다.

이현우 무주군청 관광진흥과장은 "사계절이 담긴 무주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관광명소를 다양한 콘텐츠로 알리기 위해 공모전을 기획했다"라며 "잘 알려진 명소라면 새로운 시각으로, 숨겨진 명소라면 제대로 소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공모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사)무주군관광협의회 누리집(www.mujutour.co.kr)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063-323-7788)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무주군이 각 분야 최일선에서 민원인과 만나는 담당 공무원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12일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자리는 대상 공무원들의 감정 노동을 치유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참석 공무원들은 업무상 느낄 수 있는 우울과 불안에 대한 자기진단의 시간을 갖고 전문 강사로부터 향기로 치유하는 '아로마인사이트 상담'을 받았다. 또한 '캘리그라피'와 '테라리움'

수업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찾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무주군은 민원 업무 처리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만족도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하는 등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지속 방안을 모색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최지영 화가 초청 '마이학당' 강연 개최

진안군은 12일 진안 사통팔달센터에서 진안군민을 대상으로 최지영 화가를 강사로 초청해 '마이학당' 강연을 개최했다.

최지영 화가는 따뜻한 색채와 섬세한 터치로 인간의 감정과 자연을 표현하는 작가로, 예술적 감수성을 꾸준히 표현하면서 국내외 전시와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강연에서는 '그림으로 보는 화가, 사갈의 삶과 작품'을 주제로 군민들과 정서적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공유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소방서 "폭염 속 자연발화 화재 주의해야"

진안소방서(서장 김충국)는 최근 관내에서 폭염에 따른 '자연발화' 추정 화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주천면·상전면·성수면 등에서 총 3건의 자연발화 추정 화재가 발생했으며, 퇴비용 깻묵 더미 화재, 비닐하우스 내부 화분 발화 등 장기간 이어진 폭염으로 내부 열이 축적되거나, 돋보기 효과 등에 의해 발생한 사례로 추정된다.

자연발화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으로는 △깻묵·볏짚·톱밥·퇴비 등 유기물은 밀폐하지 말고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보관하기, △기름 묻은 천·걸레 등은 완전히 건조시킨 후 금속 용기에 밀봉해 처리하기, △페인트·솔벤트류 등 인화성 물질은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환기가능한 장소에 보관하기, △창고·보관소는 내부 온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연기·냄새·발열 증상이 있으면 즉시 조치하기 등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강력 대응 천명

장수소방서(서장 한동규)는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폭행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임을 강조하며, 폭행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임무를 방해하여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에 대한 위협을 넘어, 궁극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 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장수소방서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수=고관호 기자